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테오도시오스 수도원장

주 예수 그리스도 신현 축일

신현 축일 조과 / 조과복음 마르코 1, 9-11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에서

- 신현 축일 제2응송 / 예식서 302
- 신현 축일 찬양송 / 예식서 274
- 신현 축일 입당송 / 예식서 305
- 신현 축일 찬양송 / 예식서 274
- 신현 축일 시기송 / 예식서 276
- 삼성송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 예식서 306
- 사도경 : 디도 2, 11-14, 3, 4-7 / 예식서 309
- 복음경 : 마태오 3, 13-17 / 예식서 311
- 신현 축일 성모송 / 예식서 312
- 신현 축일 영성체송 / 예식서 312
- 우리가 참빛을 보았고 대신 '신현 축일 찬양송' / 예식서 274
- 이어서 '신현 축일 대성수식' / 예식서 257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테오도시오스 수도원장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성인들의 거룩한 얼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 “성인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얼굴에서도 영적으로 은총이 넘쳐납니다.” 교회에서 1월 11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테오도시오스 수도원장(423~529)의 성화를 볼 때, 우리는 이것을 느낍니다. 성인의 거룩한 얼굴과 모습은 정교회 성화 전통 안에 살아있습니다. 실제로 성화에는 영적 은총, 영혼의 평온함, 내적 아름다움, 오랜 세월을 걸친

수련의 열매, 순결한 삶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움과 은총과 평화는 육적인 아름다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테네 외곽의 한 수도원에서 우리는 성 테오도시오스 수도원장의 이 성화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신성을 더럽히는 손으로 성화의 눈을 망가뜨려 안타깝게도 영혼의 거울인 그 눈을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성화 속 성인의 얼굴은 “영적인 은총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재물을 쌓는 장소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번 돈을 아끼고 아껴 쓰면서 재산을 불리기 위해 통장을 만들어 열심히 저축하거나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등 재산을 늘린다. 이렇게 열심히 모든 재산으로 부자가 되면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인생을 즐기거나 더 많은 ‘부’를 위해 밤낮 없이 돈 버는 일에 몰입한다. 다시 말해서 흥청거리며 돈을 쓰거나 더 많은 돈을 쌓아놓기 위해 평생을 바친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한 메시지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수확을 얻게 되자 소출한 한 것이 너무 많아서 모아둘 데가 없었다. 그러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곳간을 헐어 내고 더 큰 것을 지어서 모아둔 모든 곡식과 재물을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여러 해 동안을 쓸 많은 재산을 쌓아놓았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라고 자신에게 말한다.(루가 12,16-19)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재물을 축적하는 이유가 육적인 삶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부자의 모습은 어떨까?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거두리라. 그러면 너의 축적된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루가 12, 20) 예수님의 대답이다.

우리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음과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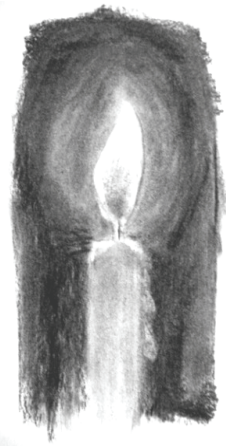
-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비록 재물을 많이 소유했다 하더라도 통장에 쓰여진 숫자만 보다가 써보지

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 세상의 재물은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재물을 모으는 데 중독이 되면 처음 동안은 만족하겠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을 재물의 노예로 만들어 스스로를 고단하게 한다. 여기에 나온 부자도 재물에 중독되어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창고를 헐어버리고 욕망의 창고를 지은 것이다.
- 하나님의 섭리를 저버리고 말았다.: 많은 재물이 생기자 부자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를 하게 되고, 주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즉 무신론자처럼 살아간다.
- 육적인 삶을 중시하다보니 영적인 삶이 약해진다.: 부자가 재물을 쌓으면서 하는 생각은 쉬고 먹고 즐기는 것이다. 영적인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자신의 육적인 삶에만 집중하게 된다.
- 지상의 삶과 사후 삶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주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셨다.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루가 12,21) 다시 말해서 재물도 잃고 죽어서도 대접받지 못 할 것이라는 의미다.

천상에 재물을 쌓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며 덕행을 쌓는 사람이다. 덕망은 우리가 죽어서도 함께 갖고 갈 수 있지만 재물은 갖고 갈 수 없다. 죽어서 갖고

☞ 3면으로 계속



실체와 그림자

(트리폰 수도원장)

그림자는 태양과 같은 근원에서 나오는 직사광선이 물체에 가로막힘으로 말미암아 가 닿지 못하는 자리이다. 그림자는 앞에서 비추이는 빛을 받은 물체의 뒤쪽 공간을 차지한다. 반면에 실체는 특징이나 질이나 중요성에서 확실하고 실체적이다.

정교회 예배에서 쓰이는 이콘을 보면 그려진 형상에 그림자가 없다. 빛은 태양이 아니라, 정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에게서 온다. 빛은 안에서 오며 그리스도의 빛을 대표하는데, 그분은 신자들의 마음 속에 거하시고 그분의 신성함과 사랑은 이 빛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빛나고 어떤 그림자도 드리우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겸손과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사랑과 빛은 가리워져 어둡게 되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실체와 함께 빛을 발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가 다른 사람에 의해 보일 것이고, 사실상 온 우주를 관통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퍼트리는 분은 바로 이분이신 것이다.

▶ 아타나시아

☞ 2면에서 계속

갈 수 없는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교부들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내가 선택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소유한 재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다면 천사가 되어 천상에 있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지상의 재물보다는 천상의 재물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알아야겠다.

▶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소 식

대교구

■ **대교구의회** ▷ 오는 1월 21일(월) 2019년 대교구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교구에 속한 각 지역 성당 의회 구성원 여러분은 꼭 참석하시어 우리 한국정교회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같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9년 1월 21일(월)

12시 : 점심 식사 / 오후 1시 : 대교구의회

■ **장소** ▷ 대교구청 회의실

■ **신자총회** ▷ 오는 1월 13일 주일 성찬예배 후 서울, 부산, 전주, 울산, 춘천 각 지역 성당에서는 신자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2018년도 결산과 영적 사업 보고 및 평가 그리고 2019년도 예산과 영적 사업 계획을 의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 받은 교인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겨울 수련회** ▷ 2019년도 겨울 수련회가 1월 23일~26일(초·중·고등부), 26일~27일(신데즈모스)에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부모님들은 수련회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영적으로 유익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가비는 학생회는 5만 원, 신데즈모스는 2만 원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각 성당 사무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가정 성수식** ▷ 새해를 맞이하여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성스러운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가정 성수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요.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결혼을 축하합니다** ▷ 지난 1월 1일 새해를 맞아 주님의 할례와 성 바실리오스 축일 성찬예배와 함께 결혼성사가 집전되었습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부부의 결합과 새 가정을 이루게 된 막심 김동호교우과 즈라타(Zarra) 교우에게 주님의 풍성한 천상의 축복으로 많은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주 성모안식 성당

■ **겨울 수련회** ▷ 성당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일시 : 1월 6일(일)~8일(화)
2. 장소 : 무주 스키장
3. 주제 : '민음의 삶 — 신화'
4. 참가비 : 10만 원 / 5만 원(스키 타지 않는 참가자)

자세한 안내는 성당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예식 . 1월 7일(월) 세례자 요한의 연관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세례자 요한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